

프로필렌, 3월 상승세 반전 기미

중국의 구매요청 점차 증가 ... 생산기업들은 거래 나서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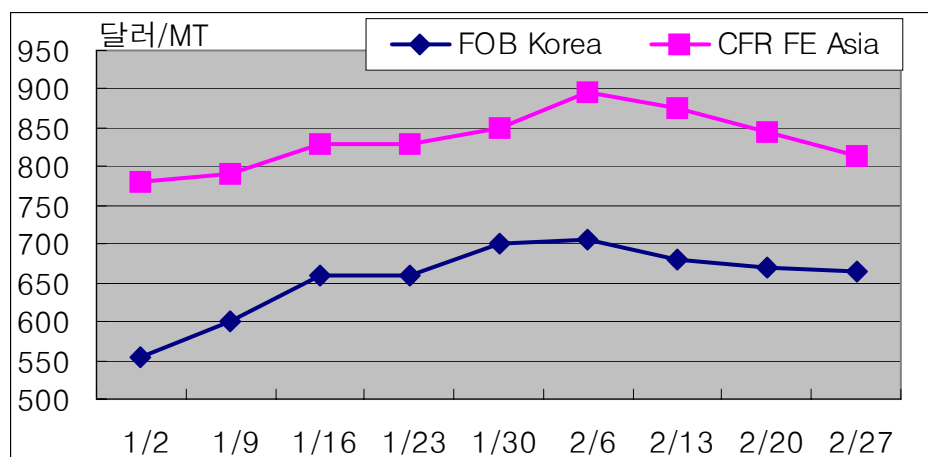
2월 PP(Polypropylene) 가격하락으로 동반하반 하락했던 프로필렌(Propylene)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필렌 시장 관계자는 “그동안 가격하락의 원인이었던 중국 내수가격이 안정돼 수출가격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프로필렌 수요와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PP가 국제시장에서 CFR FE Asia 톤당 2월6일 895달러, 2월27일 815달러로 80달러 폭락해 프로필렌도 2월 국제가격이 FOB Korea 2월6일 톤당 705달러에서 2월27일 665달러로 40달러 급락했다.

PP 가격폭락은 중국이 2003년 11월부터 이어진 가격상승세와 2004년 1-2월 원재료 가격폭등에 대응 가격을 인하시키기 위해 PP를 구매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기업 관계자는 “중국이 2004년 1월 합성수지 가격폭등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등 숨고르기에 나섰다”고 밝히면서 “최근 중국의 프로필렌 및 PP 구매요청이 늘어나 가격하락세가 반전될 것이라”고 전했다.

Propylene & PP 가격추이



그러나 프로필렌 3-4월 거래물량은 국제가격 하락을 이유로 생산기업들이 Spot 거래에 참여하지 않아 Spot Deal이 거의 없다.

프로필렌 무역상들은 “생산기업들이 프로필렌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굳이 프로필렌을 싼 가격에 팔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프로필렌 무역상들은 3월 말부터 시작되는 일본 및 국내 NCC(Naphtha Cracking Center)의 정기보수가 프로필렌의 가격을 반등시킬 것으로 예상했는데, 3-4월에는 일본 Tosoh와 Sanyo Petrochemical 등의 정기보수가 계획돼 있다.

2004년 국내에서는 7대 NCC(Naphtha Cracking Center) 중 3곳의 정기보수가 예정돼 있는데, 4월 호남석유화학의 70만톤 크래커가 30일간,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현대석유화학 No.1(45만톤), 5월 여천NCC No.2(50만톤) 크래커가 10일간의 정기보수를 계획하고 있다. <김동민 조사기자>

<Chemical Journal 2004/03/16>